

한반도 평화의 위기와 통일 선교

김 병 균(목사. 나주 영산강교회,
전남 평통사 상임의장)

올해로 우리는 우리 민족이 간악한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을 맞은 지 67주년 제요, 일제에 의해 병탄된 지 102년째 되는 해이다. 6·25전쟁 당시 남북은 세계대전에 버금하는 600만 명이란 엄청난 사상자를 냈다. 우리 민족도 죽고,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 16개국 외국의 젊은이들도 한반도의 산천에 뼈를 묻었다. 중국의 청년들도 겨울에 한반도에 내려와서 커다란 인명피해를 냈다. 남북에 민중들은 부역자로, 반동으로 몰려 죽었다. 삼천리 강토는 시산시해를 이루었다. 한국전쟁이 아니라 세계 3차 대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대장, 중국인민군 사령관 팽덕회, 조선인민군 사령관 김일성에 의해 정전협정이 맺어졌다. 이후 준전쟁 상태가 이어져왔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 햇볕정책의 결과물인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으로 통일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온 국민은 기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의도한 남북 대결정책에 의해 통일운동은 역사의 뒤안길에서 휴면상태에 있다. 천안함 사태 이후 5·24 조치로 인해 남북교류는 개성공단만 남겨 놓은 채, 모두 중단되었다.

어찌하여 이 민족은 통일을 그렇게 염원하면서도 분단의 사슬에 얽매어 있는가? 그것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는 주변 강대국 때문이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 어느 나라도 이 나라의 평화통일을 진정으로 원하는 나라가 있는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틈바구니에 위치한 한반도를 강대국의 교두보로 삼아 패권을 확장하려는 음모와 갈등의 세월이 지난 분단 60년사였다. 어떻게 이 민족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의한 평화통일로 나아갈 것인가?

1.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정세

미국의 오바마 2기, 중국의 시진핑 체제의 출범은 미-중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다. G2 국가의 두 정상 미국의 오바마와 중국의 시진핑이 권력을 잡으므로 아시아에서의 미·중 마찰이 더욱 첨예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중국은 다오위다오(중), 센카쿠열도(일)에서 일본과 대치하고 있으며 황옌다오(중), 스카보러섬(필)에서 필리핀과 대치하고 있다. 또한 사사군도(중), 호암사군도(베)에서, 또 난사군도(중), 쓰영시군도(베)에서 베트남과 대치하고 있다.

중국이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주변국가의 배후에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전략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중 마찰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은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영유권 분쟁 때문이다. 미국은 이들 국가에 중국을 상대로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에 이들 분쟁에서 손을 떼라는 입장을 수차례 경고하고 나섰다. 미·중 주도권 다툼은 아시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사태에서 중국은 미국 주도의 서방국가 움직임에 수차례 제동을 걸었다.

G2 국가 간에 군비경쟁도 치열하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1년 미국의 국방비는 전 세계 국방비의 41%이며 중국의

국방비는 전 세계 국방비의 8.2%를 차지했다. 미국은 지난해 해군력의 60%를 아·태지역으로 집중시킨다는 야심찬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호주 주둔, 일본 내 미사일방어(MD) 체제 강화 등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이것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다. 특히 북한핵이 문제이다. 미·중의 경쟁심화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줄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미·중 사이에서 양국의 정책을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조종'할 여지는 더 커 보인다. 이런 북한을 중국과 미국이 그냥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시진핑은 혁명 제1세대 지도자로서 전통적 북·중 우호견지자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이다. 북한을 설득해 핵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바마도 지난 4년 동안 전략적인 인내를 보여 왔으며, 현상관리 정책을 펴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대북협상지연이 북한에 핵무기 증대를 위한 시간을 벌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2월 29일 열린 북·미 합의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그 대가로 미국은 식량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6자회담도 미국은 내심 적극 추진하고 싶어 한다. 핵활동 중단과 활동 재개 금지를 전제로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그동안 기다려왔던 것으로 보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 차기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 구상에 달려 있다고 본다. 새 정부는 북·미 핵협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6자회담에도 적극 참여하여 핵협상타결 및 평화협정 타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극적 정책은 실현성이 거의 없다.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해야 6자회담을 한다”는 입장은 문제해결 방안이 결코 못된다. 북한이 핵개발에 사력을 다하는 것이 대남용이라고 보는가?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협상력을 높이는 카드로서 핵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봐야 북핵문제해결에 관한 본질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새 한국정부와 함께 중국의 협조를 얻어, 북한과의 협상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 미국과 적극 대화하면서 한반도의 안정유지에서 한걸음 나아가 북핵문제해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로 바꾸어 가는데 적극성을 보여야 동북아에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남북의 화해와 소통이 중국에도 발전과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북한도 한국의 차기정부를 누가 맡더라도 흡수통일이 아니라 남북이 하나의 공동체로 잘 살아보자는 정책을 취할 것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왜냐면 이명박 정권의 5·24 정책과 아울러 대북정책은 철저히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어지간한 보수들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의 차기정부가 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과 관련된 정세를 정확히 읽고서 미국과 중국과 북한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통큰 외교행보를 벌려나야 할 것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의 긴장과 전쟁을 막는 길은 국가이기주의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온 세계에 강물처럼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2. '하나님 나라'와 평화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평화신학)

'하나님의 나라'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뜻한다. 이집트의 바로나 바벨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다. 바로 '역사의 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다. 고대 이스라엘은 히브리들의 부족동맹체다. 이들이 부르짖는 '오직 야훼'만이라는 '배타성'은 종교간의 경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들이 거부하고 탈출해온 절대군주를 대치한 것이다. 하나님은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제국주의 군주와 같은 지배자가 아니다. 민중을 해방하고 자유케 하는, '민중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체험과 고백의 증언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변이나, 종교적인 미래를 기다리는 것만은 아니다. 먼저 수많은 민중이 억눌린 이 땅에 이루어지는 정의·평화·평등공동체가 이뤄지는 현실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후예 중 메시아가 와서 이룬다는 것이다.(사 9:5-7)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까지는 내면적이고 미래적인 종교적 개념으로,

또는 정신적인 표상으로만 추상화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정권과의 마찰을 피해 왜곡시킨 것이었다. 성서의 '하나님 나라'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현실과 직결된 것이요, 영적이요, 미래적인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평등공동체적 이상을 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염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사 11 : 6)

여기에 등장하는 이리와 표범과 사자는 1%가 99%를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금융자본과 대기업, 군산복합체의 억압과 수탈을 나타내는 바, 경제적·사회적·군사적 강자를 나타낸다. 반면에 어린 양과 어린 염소와 송아지는 힘없는 약자, 제3세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 사회적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빈민, 민중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3. 대통령 김대중의 평화통일 사상 및 실천

분단 이후 역대 정권 가운데 김대중 정권이야말로 평화통일을 온 몸으로 실천하여 자주·평화·민족대단결에 기초한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 정권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 2의 해방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레스왕과 같은 인물이었다. 그는 2000년 6월 평양공항에 도착하여 '도착성명'을 서면으로 발표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공항에 출영하지 않았다면 공항에서 이 글을 낭독했을 것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 동포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고 싶어 여기에 왔습니다. 너무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이제야 왔습니다. 제 평생에 북녘 땅을 밟지 못할 것 같은 비감한 심정에 젖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남북

의 7천만 모두가 이러한 소원을 하루속히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세기 동안에 쌓인 한을 한꺼번에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입니다. 이번 저의 평양 방문으로 온 겨레가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와 통일의 희망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굳게 손잡읍시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양시민, 북녘동포들에게 참으로 가슴 절절한 도 착성명을 발표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가 쓴 ‘김대중 자서전’에서 식량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피주기’라고 비판하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반박하는 글을 썼다. 그의 어록에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대안과 정답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북녘은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우리 땅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합쳐질 것이다. 둘째, 적어도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남과 북이 다시 가난해지지 말아야 한다. 셋째, 통일은 나중에 하더라도 끊어진 허리를 이어 한반도에 피가 돌게 해야 한다. 넷째, 북한이 고자세로 임포를 놓는 것은 약자의 강박관념이요 설득하고 다독겨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문제에 대한 철학이 없다. 둘째, ‘비핵·개방·3000구상’은 냉전적 사고방식이자 동족에게 굴욕을 강요하는 정책이다. 셋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강력한 반복주의자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외교론은 첫째, 나는 보수이다. 그러나 남북문제를 푸는 데는 보수·진보가 따로 없다. 화해협력 밖에는 방법이 없다. 둘째, 한국처럼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외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우리의 4강 외교는 1동맹 3친선체제가 되어야 한다. 미국과 군사동맹을 견고히 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와 친선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넷째, 우리의 경제는 중국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없다. 뒤에 오는 이들은 내가 왜 4대 강국정상외교에 관심을

기울였는지 제발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의 편이다”, “직장에서 마을에서 그도 저도 어려우면 담벼락에 대고 소리라도 질러라”, “투표장에서 선택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냐?” 8·15의 공간에서 조국의 현실에 눈을 뜨고, 독재 정치의 벽 앞에서 민주, 민생, 인권을 부르짖으며 제2의 8·15를 이루고자 민주주의 민족통일을 외치고,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일관되게 남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에의 길에 열정을 다 바쳤던 분이 바로 김대중 선생이다. 김대중 선생의 민족에 대한 기대와 꿈은 반드시 평화와 통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어마지 않는다.

4. 북핵을 둘러싼 북-미관계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한반도는 아직까지도 정전(휴전)상태이다. 먼저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우선 종전을 해야 평화협정을 맺을 것이 아니겠는가? 둘째는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다. 세번째는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것이다. 평화체제란 말은 평화의 전반적인 제도화이다. 동북아시아의 전반적인 공동안보체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남북의 안보체제, 군비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이 논의될 것이다.

북-미 관계를 연도별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1994년 : 제네바 협정
- ② 2000년 : 워싱턴 코뮤니케(조명록-올브라이트)
- ③ 2005년 : 9·19 공동성명
- ④ 2006년 : 북핵실험
- ⑤ 2009년 : 2차 핵실험, 클린턴·보즈워즈 평양방문
- ⑥ 2011년 10월 현재 : 북미회담 중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이야기가 본

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2000년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하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과 회담을 하면서 맺은 워싱턴 코뮈니케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대원칙은 북한과 미국은 앞으로 적대적 관계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것이다. 북미 적대적 관계를 위해 뭘 하느냐? 먼저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관건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북·미간에 국교수립을 하고 외교적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1991년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이후 한·중, 한·러 관계는 굉장한 속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북·미, 북·일 관계는 아직도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과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핵무기 감축협정을 맺었다. 고르바초프의 제안에 따라서, 단거리·중거리·전술핵무기를 다 없앤다. 장거리 전술핵무기미사일에 관하여서는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실제로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상당한 양을 없앴다. 그런데 이 협정을 깬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시 대통령이다. 부시는 핵무기를 감축시키기보다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했다. 소위 소형 핵폭탄을 만들어서 이란이나 이라크를 침략하는데 써 먹으려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핵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핵공격을 하겠다고 위협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을 ‘악의 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몰아친 것이 바로 이 핵무기에 의한 선제공격, 이 정책을 내놓으면서 굉장히 압박한 것이다. 압박, 제재 정도가 아니라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 북이 핵을 보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위협 때문에 결국은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길로 접어들게 되었고, 이런 결과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열리게 된 것이다. 2000년 워싱턴 코뮈니케가 제대로 진행되었으면 아마도 6자회담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6자회담에서 합의한 2005년 9·19 성명이 무엇인가? 북·미간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북·일간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결국 북의 핵을 없애려면 핵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북-미 협상의 기본은 2004년에 맺은 제네바 협정이다.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었던가?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준다는 것이다. 경수로에서는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중유를 5만 톤씩 주고, 적대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약속이었다. 이에 상응하여 북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경수로는 기초만 조성해 놓고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누구의 책임인가? 거대한 군산복합체를 운영하는 미국은 중동과 동북아에서 긴장을 일으켜 놓고 MD정책과 함께 무기장사를 하는 것이다.

5.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본질은 무엇이었는가?

첫째, '비핵개방 3000'이었다. 핵을 포기하면 국민소득 년 3000불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가난해도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사는 나라인데 들을 리가 있는가? 둘째, 압박과 제재를 조금만 더 가하면 북이 금방 무너진다는 것이다. 북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는가? 순치관계인 중국이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를 바랄 것 같은가? 북이 무너지면 미국이 북한 땅을 차지하도록 중국이 그냥 보고만 있겠는가? 북 정권이 무너지게 된다면 한반도에는 엄청난 재앙이 들이닥칠 것을 예상치도 못한다는 말인가? 셋째, 통일이 도적같이 온다고 한다. 그것은 지나친 단견이다. 그러나 통일은 도적같이 오지 않는 것이다. 이명박 식의 통일정책은 분단고착을 유지하고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여 미국의 패권주의적 동북아정책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항상 핵을 먼저 포기하라는 전제가 붙어 있었다. 요즈음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도 마찬가지이다. 북-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미국에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맞서 미국은 핵을 포기할 것을 주장한다.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지구상의 어떤 나라가 강대국으로부터 안보의 위협을 느낄 때, 비핵화

를 먼저 하겠는가? 강대국인 미국이 선뜻 적대시 정책을 완화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터 줄때, 상호간에 신뢰와 존중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사실 무기경쟁으로 안보와 평화를 이룰 수 없다.

현재 세계에서 미국무기 도입 1위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사실 미국이란 나라의 정체성은 전쟁과 자본을 굴려서 패권을 유지하는 나라이다. 무기 공급국은 어떠한 나라들인가? 최근 5년간 세계무기 거래는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백인국가 5개국이 재래식 무기공급의 75%를 장악한 '공급자에 의한 독과점' 체제다. 무기수입국은 수입국은 어떠한 나라들인가? 최근 5년간 무기를 수입하는 상위 5개국을 보자면 인도, 중국과 한국이 공동 2위, 파키스탄, 그리스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세계 무기거래의 특징을 보자면 백인 공급국, 유색인종 수입국이라는 구도는 1980년대 풍미한 종속이론과 딱 들어맞는다. 유색인종이 주축이 된 나라가 내놓는 장비들은 대부분 중저가 무인항공기나 경비행기들이다. 첨단전투기는 앵글로 색슨과 게르만, 슬라브족의 잔치나 다름없다. 인도와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저가로 도입하고 있다. 고가의 서방 무기를 도입하는 부동의 1위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렇다면 수입무기 가격은 얼마나 될까? 스텔스 기능의 고성능 전투기 도입예산은 9조 1000억원으로 증액을 검토 중이며, F-15 비행기 1대 도입 가격은 1,250억원, 2대면 2,500억원이다. 20kg 쌀 1가마 5만원 잡고 500만 가마니의 쌀값이다. 아파치 헬기는 2013년에 도입할 예정인데, 2012년으로 앞당기라는 청와대 지침이 내려왔다. 아파치 헬기는 대당 8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바 군의 요구량을 충족시키려면 3조의 예산이 필요하다.

6. 평화협정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연평도사건, 천안함사건을 비롯한 남·북간, 북·미간, 대결의 원인은 한반도 분단과 전쟁에 있다. 상시적인 전쟁 위험과 소모적인 대결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반도 비핵화 - 주한미군 철수 - 한미(조중)동

맹 폐기 - 남북군축을 함께 해결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평화협정은 통일의 교두보이자 관문이다. 남북 간, 북미 간, 적대관계를 청산해야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 한미동맹 세력의 대결정책과 분단 고수 정책을 끝장내고 자주와 평화, 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기 위해 평화협정 체결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강대국의 첨단무기를 도입해 놓고 남북 간에 긴장의 수위를 높이는 안보를 빙자한 어리석은 국방정책은 단호히 폐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남과 북 사이에 맺은 6·15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등의 평화지향적인 약속들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평화통일의 로드맵을 어떻게 밟아가야 할 것인가? 남북대화·교류협력,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통일은 ① 평화공존 ② 상호교류 ③ 평화통일의 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되는 것이다. 남북 8천만 민족의 공감대를 이루고, 주변 강대국들의 진정한 협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선을 한 달 앞둔 현재의 입장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로 귀결이 되었다. 통일에 대한 희망은 오직 차기 정권에 있다. 이명박 정권을 계승할 후보와 정당이 당선된다면 우리 한반도는 다시 재앙 가운데 둘러 싸이게 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한당국과 대화와 신뢰로 얽힌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평화 대통령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작년에 민족의 분단을 평화통일로 이끌어가야 할 한국교회의 위상을 크게 훼손하는 발언을 한 뉴라이트 계열 목사의 설교가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 김 목사는 중랑구 망우본동 금란교회 예배시간에 대표기도를 하면서 “심장부와 같은 서울에 사탄 마귀에 속한 사람이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나. 건전한 사상,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시장이 되도록 기도하자”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박원순 시장은 역대 어느 서울시장보다 시민과 서민의 입장에서 서서 시정을 잘 운영하고 있지 않는가? 한국교회의 보수주의자들의 생각은 거의 김 목사의 반공신앙에 가깝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대립절이 가까워 온다. 목회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이사가

9장 6절을 잘 인용하여 설교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보통 이 성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의 예언이 성취된 구절이라고 구속사적 의미의 고백으로 선포하고 만다. 바로 앞 절인 이사야 9장 5절은 보면 당시 강대국의 침략에 의해 피 흘리는 민중들의 고통을 담당하는 평화의 메시아를 말하고 있다. 오실 메시아는 전쟁을 종식시키는 참 구세주로서의 메시아라는 것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겂옷이 불에 쫓겨 살라지리니” 세계의 교회와 한국교회는 교세의 확장에만 급급하지 말고, 강대국이 저지른 전쟁 시나리오 속에서 날마다 피 흘리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다. 農